

낭만과 흥이 가득한 '담양대나무축제'



올해로 20돌을 맞는 담양대나무 축제가 '대숲향기, 천년을 품다'를 주제로 오는 5월 2일부터 7일까지 죽녹원과 관방제림 일원에서 개최된다. 벌써 군민과 관광객의 오감을 즐겁게 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년 연속 대한민국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담양대나무축제는 축제 브랜드 및 인지도가 높아져 이제 국내를 넘어 글로벌유형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담양지명 천년의 해', '담양방문의 해'를 맞아 대나무의 역사·문화·예술적인 측면

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직접 체험하며 느끼고 소통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천년 담양의 역사와 함께 해 온 대나무의 다양한 활용이 군민의 삶에 깊은 특별함을 재현한 대나무 역사문화 퍼레이드'를 실시하고 대나무와 관련된 역사·문화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참여형 퍼포먼스로 완성도를 높인다.

아울러 담양지명 천년과 대나무 축제의 의미를 부여한 개막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

대나무처럼 20년을 성장해 온 대나무축제의 발자취와 비전, 발전방

담양군, 오는 5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죽녹원·관방제림 일원서...올해 20주년

향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담양대나무축제 20주년 기념관', 죽순이 맛있는 음식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실제 볼 수 있는 '전국죽순요리경연대회', 대나무가 실생활과 예술품으로 변신하는 공간인 '대나무문화산업전'도 만날 수 있다.

축제 기간 아간에는 군민, 관광객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관방제림에 숲속 별빛 경관을 조성하는 한편 연극, 뮤지컬, EDM공연, 담양별빛여행 인문학부터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밤늦게까지 축제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저마다의 소원을 담은 족패를 '담양천년의 소망배'에 실어 영산강에 띄워 보내는 행사와 어린이 체험교육을 위한 대나무놀이터(문화교실, 놀이기구, 악기놀이, 수학놀이)를 대폭 확대하고 대소쿠리 물고기잡기·대나무물총놀이·대나무짚라인 운영과 연인, 친구, 가족이 함께 하기 좋은 대나무 족욕 체험, 컬러

링 그림그리기 등도 진행한다.

관광객이 직접 대나무로 뗏목을 만들어 체험하는 정글의 법칙-대나무뗏목만들기, 친환경농특산물판, 건강홍보관, 친환경농업전시관 등 기존 프로그램도 콘텐츠를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나무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대나무 부스(booth)는 디자인과 실용성을 보완해 확대 설치하고 죽물시장 운영요원의 복장을 전통복으로 통일하면서 실감나는 죽물시장을 재현할 것으로 보인다.

담양대나무축제는 고려 초부터 매년 음력 5월 13일을 축주일 또는 축술일로 정하고 주민들이 참여해 대나무를 심고 작업이 끝나면 죽엽주를 마시면서 주민의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가 계속되어 오던 중 1920년대 초에 끊겨 이를 1999년부터 담양대나무축제로 그 맥을 잇기 시작해 지금은 최고의 볼거리로 평가받고 있다.



진도군 "마을 경로당을 내 집 처럼" 통합 실버 복지 지원서비스 '호평'

진도군이 마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실버 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

■ 건강한 노후를 위한 '출발! 건강백세! 행복경로당' 연중 운영

진도군은 전체 272개소 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연 2억원을 투입해 기초체력증진, 만성질환교육, 영양교육, 구강보건교육, 낙상예방을 위한 스트레칭교육, 치매예방교육 등을 연중 순회 방문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방진료와 중풍 예방교육, 기공체조 치매 예방 교육 등 노인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노년기의 건강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즐겁고 건강한 노후의 삶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설 개보수 실시...내집처럼 편안한 경로당

진도군은 4·5여여원을 들여 매년 20여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신축과 시설 개보수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신축 및 시설 개·보수는 ▲4억8,500만원(2015년) ▲4억원

(2016년) ▲4억원(2017년) 등 44개소 경로당을 새롭게 단장했다.

특히 누수나 벽면균열 등 시설 노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로당을 우선 지원해 경로당 도색,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 및 화장실 보수, 창호공사 등도 함께 지원해 '내 집처럼 편안한 경로당'을 만들고 있다.

■ 경로당, 내 집보다 좋은 이득한 쉼터로

경로당을 어르신들에게 안락한 최고의 쉼터로 만들어 삶의 질 향상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냉·난방기 등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진도군 전체 경로당에 에어컨 등을 설치·완료하고 난방비로 연 4억2,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경로당의 전기, 통신, 상·하수도료에 대해 운영비 매년 3억5,000만원 지원, 경제적 부담없이 어르신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부식비와 양곡비도 함께 지원,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경로당에서 휴식을 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곡성군, 환경미화원 건강 살핀다

근골격계 부담직업 위험요인 조사

곡성군은 환경미화원 25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직업' 위험요인 조사를 시작했다.

'근골격계 부담직업'이란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을 말하며 환경미화원의 업무도 이에 해당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 25명의 환경미화원이 음·면별 담당구역에 순회

하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쓰레기, 가구, 매트리스 등의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직업' 위험요인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르면 4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업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및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곡성=김광희 기자

울돌목에서 명량의 역사를 만난다

오는 21일부터 명량역사체험마당·뜰채 송어잡이도 볼거리



해남 우수영에서 열리는 명량역사체험마당이 4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과 명량대첩을 널리 알리고 각종 체험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되고 있는 명량역사체험마당은 매년 1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역사 체험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 체험마당은 4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실시되며,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우수영 관광지 내에 조성된 조선시대 저잣거리에서는 전통대강간과 짚풀공예, 거북신 만들기, 이순신 어복쓰기 및 탁본찍기, 장군복 입고 사진찍기, 거북신 그리기, 옥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우수영강강술래 공연, 전리우수영성문을 지키던 조선 수군의 근무교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수문장교대식, 우수영 부녀자들의 삶을 오롯이 담아낸 우수영 부녀농요 공연, 지역문화예술단체 공연 등이 펼쳐져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울돌목의 명물, 우수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인 뜰채 송어잡이도 울돌목 바다(진도대교 교각 옆)에서 관람할 수 있다. 지난 4월초부터 시작된 뜰채 송어잡이는 울돌목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오는 송어를 뜰채를 이용해 잡는 방법으로 인근 지역 어민들이 몰래에 맞춰 고기잡이 하는 모습을 구경할 수 있다.

목포시 "봄철 식중독 주의하세요"

목포시가 봄철 식중독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봄철은 꽃놀이, 현장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아 김밥, 도시락 등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계절이다.

질병관리본부가 5년(2011~1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식중독은 연간 평균 69건(전체 286건)이 발생했고, 평균 32%가 봄철(4~6월)에 나타났다.

식중독 환자가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침저녁 기온이 쌀쌀

해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야외활동으로 장시간 음식물이 방치되는 등 식품보관 및 섭취시 개인위생에 대한 관리 부주의 때문으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식중독 예방 요령으로는 ▲조리 후 후 깨끗이 손씻기▲음식은 충분히 익혀 위생적으로 만들기▲음식은 별도 용기에 따로 안전하게 담기▲실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기▲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안전한 물 마시기 등이다.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